



본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크게 정치 사회적, 정책적, 종교적, 조직적, 인력개발, 타기관과의 관계 등의 견지에서 본 개별 해외원조사업장의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개별 국가 정책은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호의적이며, 원조를 받기 위해 노력하나 왜곡되어 사적인 치부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개 영국법 등 유럽의 법을 따르고 있으며, 법규정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특히 규정에 있어 외국인간단체의 법 적용과 사회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목적인 바와 달리 어려워지는 경우가 허다하여 현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뿌리깊은 카스트 제도 및 각종 제도로 인해 정치적 부정부패가 심각하지만, 이미 그런 과정을 겪어온 한국 민간단체는 경험으로 이를 극복하고, 현지인에게 직접 서비스하고 헌신하여 몇몇 사업은 한국적 모델이라고 할 만큼 주위 외국 민간단체가 도움을 청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사례도 있다.

종교적으로 보면 방문한 개별 NGO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및 불교를 선교한다는 기본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힌두교 및 모슬렘의 사회분위기와 대립된다고 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이를 타개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한계가 있었으며, 불교 단체의 경우 불교를 이해하는 사회문화적인 특성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에 호응하여 잘 훈련되었으며 지역주민에게 헌신하는 현지인이 사업을 맡고 있어 지역사회 요구에 알맞은 사업을 개발해가고 있다.

이는 종교관점을 벗어나서 세계가족계획연맹에 회원단체 중 믿을 만한 현지인을

“민간단체들간의 사업중복 및 과다경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나 각기 다른 외국의 민간단체들이 상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교환 및 사업을 함께 개발하고 있다.”



선정하고, 현지인과 직접적인 경험의 공유와 정보교환을 통한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전문성에서 개별 사업장에서는 모두 사업을 수행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의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경제,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문제가 부족하지만 특히 여성과 아동의 지위가 낮은 사회문화적인 관습으로 인해 여성, 아동 보건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조직면에서 개별사업장에 모두 한국인이 파견되어 지회를 이루고, 자원봉사자를 통해 주로 운영되고,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 훈련된 현지인을 일부 직원으로 고용하여 현지인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문화관습과 종교 모든 면이 다르므로 현지인 활용에 어려움이 크고, 지속적인 인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한국으로의 유학, 장학금 지급, 자원봉사의 의미확립, 지속적인 소득증대사업 등으로 자원봉사 및 민간단체 직원의 장점을 인지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보면, 많은 민간단체가 사업의 중복 및 과장경쟁으로 현지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나, 상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방글라데시의 경우 6천여개의 외국 민간단체가 있어 단체활동의 정보교환과 동시에 세계적 흐름을 인지하고, 외국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함께 개발하고 있다. 네팔의 경우는 정부가 관여하여 네팔정부와 현지 사업경험이 있는 한국의 민간단체, 한국국제협력단이 모두 함께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이뤄 바르토펠 보건대학을 만드는 등 해외원조의 모범사례를 보여주었다. 이는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별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업무와 지원방법을 명백하게 명시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이뤄냈다.

위와같이 개별 사업장별로 견학하면서 현지 숙박, 음료, 식사, 교통 등 다소 불편한 면도 있었지만 현지 체험을 통한 10여일 동안의 3개국 사업장 방문 프로그램은 실무자들이 현지 활동을 이해하고 서로 비교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외국 기관과의 연계방안, 사전자료 개발 등 좀더 진일보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지속된다면 더욱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글서체